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권 1호 (2015년 3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국내 연구의 메타분석적 개관 장혜인 · 박형인

행위의 수정가능성, 후회 대응 전략과 중년여성의 후회 정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김지혜 · 정영숙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박은희 · 최은실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이 아동의 중심축 행동과 지능 및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정미 · 정은주

자원의 종류가 독재자 게임의 자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 천영운 · 김혜리

1-3세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경숙 · 정석진 · 김명식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8 권 제 1 호 / 2015. 3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국내 연구의 메타분석적 개관	장혜인 · 박형인 / 1
행위의 수정가능성, 후회 대응 전략과 중년여성의 후회 정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김지혜 · 정영숙 / 33
성인에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박은희 · 최은실 / 57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이 아동의 중심축 행동과 지능 및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정미 · 정은주 / 81
자원의 종류가 독재자 게임의 자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	천영운 · 김혜리 / 101
1-3세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경숙 · 정석진 · 김명식 / 117

한국발달심리학회

1-3세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경 숙 정 석 진 김 명 식[†]
한신대학교 세원영유아 아동상담센터 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1-3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주요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구성하고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5개 시도에 거주하는 1-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95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과 부모의 인터넷 사용,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첫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은 아버지 보다는 주로 어머니의 인터넷 사용과 관계가 있었다. 둘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은 일반적 발달에 있어 주로 사회성 감소와 정서사회적 발달 저하와 관계가 있었다. 셋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은 일반적 발달에 있어 개인-사회성, 의사소통, 대근육운동과 소근육운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정서사회적 발달에 있어 공격·반항성, 활동·충동성 등의 외재화 행동문제, 우울·퇴행과 일반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 정서사회적 발달

* 본 연구는 2011-2012년도 아산사회복지재단 중진학자연구(연구책임자 한신대 이경숙)의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짐.

[†] 교신저자: 김명식,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효자동 2가)

E-mail: klb2000@jj.ac.kr

2012-2013년 우리나라의 영상물 매체 보유율은 TV 96.7%, 컴퓨터 82.3%,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및 스마트 패드) 71.6%로 영상물 매체의 보유율이 과거에 비해 매우 증가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가구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2011년 31.3%, 2012년 63.7%, 2013년에 71.6%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30대와 40대 가구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97.3%와 88.8%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또한 인터넷 이용자 중 91.0%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하며, 인터넷 이용자의 88.0%가 1일 1회 이상, 평균 2시간 정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대다수가 영상물 매체를 보유하고 매일 영상물을 이용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상당히 많은 영상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부모의 인터넷 중독과 영유아 자녀의 영상물 과다노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만 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져왔다. 향후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의 부모의 인터넷 사용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다노출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강정원, 장수진, 김승욱, 2011).

최근 들어 비교적 대단위 영유아 대상 국내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2014년도 전국 대상 연구에 따르면 0-3세 영유아의 98%가 다양한 영상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의 이용 영상 매체 1순위는 'TV 정규 방송, TV 케이블 방송', 2순위는 '핸드폰, TV 정규 방송, 케이블 방송', 3순위는 '핸드폰, 컴퓨터와 비디오/DVD' 순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정석진, 박진

아, 전연진, 2014). 이는 2005년도에 이루어진 영유아의 영상물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정유경, 2005)와 비교할 때, 핸드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영상 매체 이용이 매우 증가한 결과이다.

2013년의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0-5세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68.4%였고,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2.27세 였다. 1세때에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영유아도 전체의 23.4%나 되었으며, 90%이상의 영유아가 하루 평균 10-40분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했고, 9.5%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유아동의 인터넷 이용률도 80.1%나 되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영유아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3).

보통 영유아가 영상 매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부모에 의해 수동적으로 영상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가사 일을 하기 위해 영상 매체를 활용하며, 영유아 자녀가 영상 매체를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부모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부적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2014).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머니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TV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기 쉬어 자연스럽게 영유아 자녀도 영상물에 과다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이경숙 등, 2005). 영상물에 과다 노출되거나 과몰입된 영유아의 경우, 먼저 영상물 이용을 제한하고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소아과학회도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TV를 보여주지 말고 대화하기, 놀기, 노래하기, 함께 읽기

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하고 권유했다(뉴스위크 한국판, 1999).

최근 연구에서 영유아 시기의 영상에 대한 과몰입이나 과도한 노출이 이후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영상 매체 이용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1990년대부터 영유아의 영상 매체 시청에 대한 연구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영상물은 빠른 화면전환, 다양한 색채의 시각적 영상과 소리 등으로 매우 매혹적이므로, 영유아를 쉽게 과몰입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기분 조절이 잘 안되는 까다로운 기질이나 성향을 지닌 영유아는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영상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만 3세 미만의 유아가 짜증이 나거나 울 때마다 TV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진정시키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이경숙, 2014; SBS, 2008. 7. 28). 만 3세 이전은 정서적인 상호교류, 의사소통, 충동조절 등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변연계의 발달을 저해하여 이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큰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다(신성욱, 2010).

영상물 과몰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만 2-24개월 영유아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텔레비전, DVD, 비디오 시청이 30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30개월 이후라도 텔레비전, DVD, 비디오 시청을 시작한 영유아의 과체중, 언어발달 지연, 행동문제 등의 부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었다(Zimmerman, Christakis, & Meltzoff, 2007). 또한 4세 유아 1,266명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도, TV

시청을 많이 할수록 폭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kaddes, Bilge, Alyanak, & Kora, 2000). 1-10세 영유아 707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에서도, 영유아기에 TV 시청 시간이 하루 1시간씩 늘 때마다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주의집중력 문제가 생길 위험이 10%씩 높아지고, 언어발달이 지연될 확률이 최고 2배나 더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Anderson, Huston, Schmitt, Linebarger, & Wright, 2001). 또한 13,000명의 아동의 스마트폰 노출에 관한 어떤 연구에서는 아동이 출생 전과 후에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양이 7세가 되어서 보이는 행동장애와 매우 큰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Hozefa, Leeka, Carsten, & Jorn, 2010). 일본에서도 유아기부터 장시간 TV를 시청한 유아는 소위 '비디오 증후군'에 걸리기 쉬워, 나중에 아동이 되었을 때 언어, 정서, 의사소통에 병리적 증상을 보이기 쉽다고 보고되었다(가타오카 나오키, 2001).

국내에서 영상물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경숙 등(2005)은 영상물에 과다노출된 유아의 신체적 발달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언어발달지연,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제, 정서조절문제, 공격성, 역기능적 활동수준, 과도한 경직성과 기타 행동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강병재(2008)는 게임에 과몰입된 유아의 공격성이 증가할뿐 아니라 조급하고 우울한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또한 영유아로부터 아동청소년까지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물의 과다사용은 공격성, 폭력성, 충동성, 우울, 불안과 상당히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강신영, 2006; 방효국, 김낙홍, 2013; 이경숙 등, 2005; 오익수, 2003, 유명

옥, 2009). 또한 영유아의 인터넷 중독이 외현화 및 내현화 문제와 상관이 있으며, 특히 외현화 문제와의 상관이 크다고 보고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본 연구에서는 첫째,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구성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했다. 둘째, 국내의 1-3세 영유아를 둔 부모의 인터넷 중독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의 관계,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셋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 연구를 통해 1-3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의 부정적인 효과를 실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건강한 영상물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지역,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95명이었다.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의 평균 연령은 33.93개월(SD=8.58)이며, 남아 444명(55.8%), 여아 351명(44.2%)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평균 35.74세(SD=4.10), 어머니의 경우 평균 33.73세(SD=3.80)이었다. 직업은 부의 경우 사무직 214명(26.9%), 서비스업 등 경영 111명(13.9%), 단순노무 및 생산직 91명(11.4%), 서비스직 68명(8.6%), 고급기술 및 전문직 66명(8.3%), 운수장비 운전 49명

(6.2%), 군경 31명(3.9%), 판매직 22명(2.8%), 행정관리직 18명(2.3%), 교직 15명(1.9%) 등의 순이었다.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 397명(49.9%), 사무직(6급 이하 공무원) 105명(13.2%), 서비스직 50명(6.3%), 교직 46명(5.8%), 전문직 34명(4.3%), 서비스업 등 경영 28명(3.5%), 단순노무 및 생산직 10명(1.3%) 등의 순이었다. 부모의 학력,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산층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 영유아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795)

특성	구분	빈도(%)	계
지역별 분포	서울/경기	345(43.4)	795명 (100%)
	충청도	119(15.0)	
	경상도	128(16.1)	
	전라도	192(24.2)	
	강원도	11(1.4)	
어머니 학력	대학원졸	68(8.6)	795명 (100%)
	대졸	494(62.1)	
	고졸	213(26.8)	
	중졸	2(0.3)	
	초졸	4(0.5)	
월수입	무응답	14(1.8)	795명 (100%)
	100~200만원	89(11.2)	
	200~300만원	216(27.2)	
	300~400만원	194(24.4)	
	400~500만원	125(15.7)	
	500만원 이상	156(19.6)	
	무응답	15(1.9)	

연구도구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척도(Infant Visual Media Overindulgence Scale)

국내외에서 영상물 과몰입에 관해 개발된 척도가 없어 이경숙 등(2005)이 영유아의 영상물 시청 실태, 비디오 증후군 임상 유아에 관한 연구 결과와 임상적 경험,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총 19문항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해당 행동 및 임상적 특성을 영유아가 보이는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답하여,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하여 총점 평균을 구하도록 하였다. 이 19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발달심리학 박사 2명,

소아정신과 의사 1명, 발달심리학 석사 1명이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을 측정한다고 80% 이상 동의한 12문항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2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사용했다. 12개 문항 중 항목-전체 항목간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30미만이거나 2개 이상의 요인에 중복 상관되거나 특정 요인에 묶이지 않는 문항들을 제거했다. 그 결과 2개 요인 총 8문항이 추출되었다. 1요인 ‘영상물입과 행동화’ 5문항, 2요인 ‘일상생활장애’ 3문항이었다. 전체 8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4였다(표 2).

표 2.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척도의 요인분석

문항	구분	요인적재량	
		요인1	요인2
1. 영상물을 봤을 경우 다시 틀어달라고 심하게 보챤다		.73**	
2. 영상물을 못 볼 경우 혹은 못 보게 할 경우 심하게 저항한다		.68**	
3. 영상물을 보는 동안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능력이 평소 보다 떨어진다(예: 불러도 잘 쳐다보지 않거나 다른 과제로의 주의전환이 어렵다)		.59**	
4.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상물을 더 많이 보려한다		.58**	
5. 영상물을 본 이후 짜증과 공격성 등 부정적 정서와 행동이 많아졌다		.46**	
6. 영상물을 본 이후 부모-자녀관계가 나빠졌다			.77**
7. 영상물 시청 이외에 매사에 다른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70**
8. 영상물을 본 이후 수면 문제가 생겼다			.57**
고유가(Eigen value)		1.95	1.52
설명량(%)		24.48	19.10
누적설명량(%)		24.48	43.58

** p<.01

주. 요인1. 영상물입과 행동화. 요인2. 일상생활장애

부모 작성용 유아모니터링 체계(Korea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K-ASQ)

부모 작성용 유아 모니터링 체계(K-ASQ)는 미국에서 개발된 ASQ를 2006년도에 허계영, Squires, 이소영, 이준석(2006)이 표준화한 도구이다. 4개월-60개월 사이의 영유아의 발달지체를 선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인지), 개인-사회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당 6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의사소통 영역은 .66, 대근육 영역은 .79, 소근육 영역은 .65, 문제해결 영역은 .61, 개인-사회성 영역은 .62이었다.

영유아사회정서측정도구(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ITSEA)

1-3세 영유아 자녀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riggs-Gowen과 Carter(2001)의 영유아 사회정서측정도구(ITSEA)를 이경숙, 김명식, 박진아(진행중)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TSEA는 어머니가 12-36개월 영유아 자녀의 사회정서행동을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항상 그렇다(2점)의 3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 영역 중 외현화, 내재화 행동문제 2개의 하위 영역을 사용했다. 외현화 행동문제는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 또래 공격성, 내재화 행동문제는 우울·퇴행, 불안, 분리불안, 새로운 억제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현화, 내재화 행동문제와 그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의 범위는 .89-.91이었다.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K척도

1-3세 영유아 부모의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

기 위하여 김청택 등(2002)이 개발한 한국형 성인용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K척도 도구를 사용했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예;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금방 답답하고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사이버 세상과 현실이 혼동될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가 줄어들면서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인터넷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안, 초조, 짜증, 분노를 경험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과 조절을 위한 외부적 도움이 필요한 중독 상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4이었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주로 사용한 통계방법은 첫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척도의 구성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부모의 인터넷 중독, 영상물 과몰입과 발달과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어떤 발달특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을 독립변인, 각각의 발달척도를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epwise method)을 실시했다.

결 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부모의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

1-3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부모의 인

표 3.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과 부모의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 (N=795)

영유아 영상물 사용	인터넷 중독	부	모	M(SD)
1. 영상몰입과 행동화		.140**	.290**	1.07(1.25)
2. 일상생활장애		.064	.114**	0.10(0.38)
영상물 과몰입(전체)		.139**	.286**	1.18(1.42)
M(SD)		31.79(10.34)	31.45(9.41)	

** $p < .01$

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부모의 인터넷 중독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의 인터넷 중독과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전체)($r = .28, p < .01$), 하위요인인 영상몰입과 행동화($r = .29, p < .01$)와 일상생활장애($r = .11, p < .01$)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상관값의 범위도 낮은 수준에서 보통 수준까지 있었다. 모의 인터넷 사용은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과 관계 있었다. 반면 부의 인터넷 중독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전체)($r = .13, p < .01$), 하위요인인 영상몰입과 행동화($r = .14, p < .01$)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상관값은 매우 낮았다. 부의 인터넷 중독과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의 상관은 낮다고 할 수 있다(표 3).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일반적 발달과의 상관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일반적 발달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부모 작성용 유아모니터링 체계(K-ASQ)에서 평정한 영유아의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과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전체), 하위요인인 영상몰입과 행동

화와 일상생활장애는 유아모니터링 체계(K-ASQ)의 영유아의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11 \sim -.21$).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과 사회성 발달은 상대적으로 부적 상관이 높아($r = -.18 \sim -.21$),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이 증가할수록 개인-사회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정서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부모 작성용 영유아사회정서측정도구(ITSEA)에서 평정한 영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내재화 행동문제와 그 하위요인간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전체), 하위요인인 영상몰입과 행동화와 일상생활장애는 대부분의 영유아사회정서측정도구(ITSEA)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하위요인, 내재화 행동문제와 하위요인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r = .11 \sim .34$)이 있었다.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과 외재화 행동문제와 하위요인인 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의 상관이 보통이거나 높은 편이었고($r = .21 \sim .47$), 내재화 행동문제와 하위요인인 우울·퇴행과 일반불안과의 상관이 약간 낮거나 보통 수준이었다($r = .18 \sim .29$).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이 증가할수록 활동·충동성과 공격·반항성 등의 외

표 4.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과 일반적 발달(K-ASQ)의 상관 (N=795)

	1	2	3	4	5	6	7	8
1								
2	.64**							
3	.68**	.74**						
4	.71**	.74**	.71**					
5	.78**	.74**	.75**	.81**				
6	-.15**	-.12**	-.13**	-.11**	-.18**			
7	-.18**	-.17**	-.16**	-.14**	-.20**	.31**		
8	-.18**	-.15**	-.16**	-.13**	-.21**	.96**	.55**	
M	55.56	57.97	56.87	56.60	56.07	1.07	0.10	1.18
(SD)	(12.21)	(7.78)	(9.63)	(9.49)	(9.50)	(1.25)	(0.38)	(1.42)

** $p < .01$

주 1. 의사소통 2. 대근육운동 3. 소근육운동 4. 문제해결 5. 개인·사회성 6. 영상물입과 행동화 7. 일상생활장애
8. 영상물 과몰입(전체)

표 5.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과 정서사회적 발달(ITSEA)의 상관 (N=79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52**											
3	.32**	.38**										
4	.83**	.79**	.71**									
5	.02	.21**	.16**	.16**								
6	.24**	.47**	.16**	.38**	.30**							
7	.20**	.34**	.08	.27**	.01	.23**						
8	.04	.21**	.02	.10**	.12*	.31**	.36**					
9	.20**	.47**	.13**	.35**	.39**	.65**	.69**	.80**				
10	.25**	.34**	.13**	.29**	.27**	.20**	.11*	.09	.21**			
11	.03	.10**	.06	.07	.18**	.06	-.01	-.05	.02	.31**		
12	.22**	.33**	.13**	.28**	.29**	.20**	.09**	.06	.19**	.96**	.55**	
M	.78	.54	.23	.52	.15	.32	1.05	.94	.62	1.07	.10	1.18
(SD)	(.41)	(.28)	(.33)	(.27)	(.20)	(.26)	(.38)	(.46)	(.23)	(1.25)	(.38)	(1.42)

* $p < .05$ ** $p < .01$

주 1. 활동·충동성 2. 공격·반항성 3. 또래공격성 4. 외현화 5. 우울·퇴행 6. 일반불안 7. 분리불안
8. 새로움억제 9. 내재화 10. 영상물입과 행동화 11. 일상생활장애 12. 영상물 과몰입(전체)

재화 행동문제가 증가했고, 우울·퇴행, 일반 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5).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영상물 과몰입의 하위요인인 영상물입과 행동화와 일상생활 장애를 독립변인, 유아모니터링 체계(K-ASQ)의 5개 요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단계적 방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의 하위요인인 영상물입과 행동화는 개인-사회성($\beta=-.13, p<.01$), 의사소통($\beta=-.10, p<.05$) 등을 부적으로 예측했고, 각

각의 설명량은 1.5%, 0.9%였다. 또한 영상물 과몰입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장애는 대근육운동($\beta=-.17, p<.01$), 의사소통($\beta=-.15, p<.01$)과 개인-사회성($\beta=-.15, p<.01$), 문제해결($\beta=-.14, p<.01$), 소근육운동($\beta=-.13, p<.01$) 등을 부적으로 예측했고, 각각의 설명량은 3.2%, 3.5%, 4.1%, 2.1%, 2.7%이었다. 결국 영유아의 과도한 영상물 사용은 영유아의 사회성, 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등 전반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정서사회적 발달

표 6. 영유아 영상물 사용의 일반적 발달(K-ASQ)에 대한 회귀분석 (N=795)

심리발달/영상물사용	회귀값	B	SE	β	t	R ²	ΔR^2	F
	상수	57.16	.62					
1. 의사소통	일상장애	-4.53	1.25	-.15	-3.61**	.035	.035	14.50**
	영상몰입	-1.00	.40	-.10	-2.47*	.044	.009	
	상수	58.38	.32					20.41**
2. 대근육운동	일상장애	-3.39	.75	-.17	-4.51**	.032	.032	
	영상몰입							
	상수	57.95	.50					
3. 소근육운동	일상장애	-3.16	.99	-.13	-3.18**	.027	.027	10.54**
	영상몰입	-.64	.32	-.08	-1.98*	.033	.006	
	상수	56.99	.39					
4. 문제해결	일상장애	-3.44	.93	-.14	-3.69**	.021	.021	13.66**
	영상몰입							
	상수	57.58	.48					
5. 개인-사회성	일상장애	-3.65	.97	-.15	-3.75**	.041	.041	18.63**
	영상몰입	-.99	.31	-.13	-3.17**	.056	.015	

* $p<.05$ ** $p<.01$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영상물 과몰입의 하위요인인 영상몰입과 행동화와 일상생활장애를 독립변인, 영유아사회정서측정도구(ITSEA)의 외현화 행동문제, 내재화 행동문제와 그 하위요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단계적 방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의 하위요인인 영상몰입과 행동화는 외현화 행동문제 중 공격·반항성($\beta=.34, p<.01$), 활동·충동성($\beta=.25, p<.01$), 또래공격성($\beta=.13, p<.01$)을 정적으로 예측했고, 각각의 설명량은 11.9%, 6.3%, 1.7%였다. 또한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의 하위요인인 영상몰입과 행동화는 내재화 행동문제 중 우울·퇴행($\beta=.24, p<.01$), 일반불안($\beta=.20, p<.01$), 분리불안($\beta=.12, p<.05$)을 정적으로 예측했고, 각각의 설명량은 7.7%, 4.4%, 1.4%였

다. 또한 영상물 과몰입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장애는 내재화 행동문제 중 우울·퇴행을 부적으로 예측했고($\beta=.10, p<.05$), 설명량은 1%였다. 결국 영유아의 과도한 영상물 사용은 영유아의 공격·반항성, 활동·충동성, 또래공격성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물론 우울·퇴행과 일반불안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에도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발달과의 관계와 영향을 연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표 7. 영유아 영상물 사용의 정서사회적 발달(ITSEA)에 대한 회귀분석 (N=795)

심리발달/영상물사용		회귀값	B	SE	β	t	R ²	ΔR^2	F
활동·충동성	상수		.07	.02					26.88**
	영상몰입		.08	.01	.25	5.18**	.063	.063	
외현화 공격·반항성	상수		.46	.01					53.92**
	영상몰입		.08	.01	.34	7.34**	.119	.119	
또래공격성	상수		.20	.02					6.76**
	영상몰입		.03	.01	.13	2.60**	.017	.017	
우울·퇴행	상수		.11	.01					18.90**
	영상몰입		.04	.00	.24	4.82**	.077	.077	
일상장애	상수		.05	.02					18.18**
	영상몰입		.04	.01	.10	2.03*	.087	.010	
내재화 일반불안	상수		.28	.01					18.18**
	영상몰입		.04	.01	.20	4.26**	.044	.044	
분리불안	상수		1.01	.02					5.68*
	영상몰입		.03	.01	.12	2.38*	.014	.014	

** p<.01

개발 및 구성하였다. 이경숙 등(2005)이 제시한 예비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구성하고 타당도를 검증했다. 또한 전국 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95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인터넷 사용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부모의 인터넷 중독과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은 낮거나 보통 수준($r=.11-.29$)인 반면, 아버지의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은 낮은 수준($r=.13-.14$)이었다.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은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인터넷 사용과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일반적 발달간에 상관이 있었고, 특히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사회성 감소가 관계가 있었다. 또한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외재화 행동문제와 하위요인인 활동·충동성과 공격·반항성, 내재화 행동문제와 하위요인인 우울·퇴행, 일반불안간의 상관이 있었다.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 증가가 정서사회적 발달의 저하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일반적 발달과 정서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일반적 발달에 있어 사회성, 의사소통, 대근육운동과 소근육운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정서사회적 발달에 있어 공격·반항성, 활동·충동성 같은 외재화 행동문제뿐 아니라, 우울·퇴행과 일반불안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에도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1-3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의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들(이경숙, 정석진, 김명식, 서보경, 2013; Nakken, 1996)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영유아 자녀가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인터넷을 과다사용하는 어머니와 생활하게 되면, 생애 초기 이른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인터넷 등 영상물에 과다 노출되기 쉽다. 특히 만 3세 이전인 영유아기에 영상물에 과다 노출될 경우 청소년, 성인기에도 영상물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아진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한편 아버지의 인터넷 중독은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부모 모두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이경숙 등, 2013)와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영유아기의 특성상 먹이고 재우고 보살피며 상호작용하는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영유아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큰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예방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이나 과다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3세 영유아의 어머니 중 인터넷 중독군은 정신적으로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하고 자녀와 사이에서 관계적 좌절감을 더 느끼기 쉽다는 것이 박진아 등(2014)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곧 영유아기의 방치적 양육의 한 방식으로 영상물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인터넷 중독이나 과다사용하는 어머니를 위한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 상담,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시

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통합적이고 실제적으로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1-3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중독이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심리사회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Young, 1999; Young & Rogers, 1998)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 자녀의 영상물 이용에 정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된다는 선행 연구결과(조안아, 고영자, 2013)와도 일치된다. 영상물 과몰입이나 과다사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영유아 자녀와의 정서적,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증진시키는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영상물 과몰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도 매우 필요하며, 예방 프로그램에는 영상물 과몰입의 폐해를 인식시키기, 영상물 시청에 대한 시간제한 등의 안내,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소개, 자녀의 행동 특성에 맞는 상담 및 지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대근육운동 및 소근육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3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 심지어 영유아기 운동기능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영상물 과몰입을 계속 방치할 경우 6-7세 아동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아동에 비해 운동기능이나 신체적 발달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경숙 등, 2005)에서는 특별히 보고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이에 대한 종단적 확인 작업과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또한 1-3세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이 정

서사회적 행동문제 중 활동·충동성, 공격성·반항성, 우울·퇴행, 일반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이 외현화 문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유아의 영상물 과다사용이 정서적 문제, 폭력성, 주의집중력 문제, 행동장애와 관계 깊다는 선행연구들(신성욱, 2010; Anderson, Huston, Schmitt, Linebarger, & Wright, 2001; Mukaddes, Bilge, Alyanak, & Kora, 2000)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만 3세 이전의 영유아 시기는 뇌피질 발달이 미숙해서 아직 충동 조절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충동적인 영유아는 강한 소리와 색채로 끊임없이 사람을 자극하는 영상물에 더욱 빠져들게 될 수 있다. 어린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이나 과다노출은 과도한 충동성을 가져오고 정서사회적 발달을 저해하기 쉬우므로, 영상물에 과몰입된 1-3세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어 주는 상담 및 치료적 접근과 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가 지닌 기질적 특성,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부모교육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영상물 중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영상물을 이용하는 동안 재미있고 만족감을 느껴 이후에도 점점 영상물을 이용하게 된다'(노안영, 정민, 2011)와 인터넷 이용자의 50% 이상이 '인터넷 이용이 즐거움을 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등이 보고되었다. 아마도 만 3세 전후의 영유아도 다른 것에 비해 비교적 이용하기 쉬운 영상물로부터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일상적인 환경 내에서 얻어지는 감각적 자극의

강도보다 영상물로 입력되는 감각의 정도가 강해서 자동적으로 주의집중과 지나친 몰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영유아 시기에 TV,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말고도 보다 다양한 현실적 활동을 통해 부모와 영유아 자녀 모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조성이나 예방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부모가 자녀의 행동 문제에 대해 K-ASQ나 ITSEA등을 통해 평정하게 했는데, 향후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사용하거나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상태를 정확히 체크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나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둘째, 영유아의 과몰입 척도를 구성하고 그 타당도를 예비적으로 검증하였는데, 향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영유아 과몰입 척도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과 같이 국내에서도 영유아를 위한 영상물 중독 예방 안내책자발간이나 홍보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영상물에 과몰입된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실제적인 심리상담적 개입이나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유아 자녀의 기질적 특성과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잘 인식하고 다룰 수 있도록 특성화된 부모교육이 지역사회 연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중독인 어머니를 위한 보다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심리상담 및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들의 영상물 과몰입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국내의 실정에 맞게 영유아의 영상물 사용, 부모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등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타오카 나오키 (2001). 텔레비전이 자폐아를 만든다. 도서출판 길쳐클럽.
- 강병재 (2008). 게임과몰입 유아의 행동 특성에 관한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21.
- 강신영 (2006). 유아에게 나타난 컴퓨터 활용의 역기능에 관한 연구. <http://myhome.naver.com/wanghubab/1.html>. 미간행.
- 강정원, 장수진, 김승옥 (2011). 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유아와 가족 변인의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205-224.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노인영, 정 민 (2011). 우울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예측 변인들. 상담학연구, 12(1), 355-371.
- 미래창조과학부 (2013). 2012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2014).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1), 55-70.
- 방효국, 김낙홍 (2013). 만 5세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사용실태 및 게임 과몰입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6), 43-64.
- 신성옥 (2010). 뇌가 좋은 아이. 서울: 마더북스.
- 오익수 (2003).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의 심리

- 적 요인. *상담학연구*, 4(3), 513-529.
- 유명옥 (2009). 고등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정신건강, 충동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육아정책연구소 (2013). 영유아의 미디어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 이경숙 (2014). 0-3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서울: 집문당.
- 이경숙, 김명식, 박진아 (진행중). 한국판 ITSEA의 타당화 연구.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정유경 (2005). 과도한 영상물 노출양육이 영유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임상군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75-103.
- 이경숙, 정석진, 김명식, 서보경 (2013). 초등 고학년용 부모연계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 발달*, 26(1), 231-253.
-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전현진 (2014). 0-3세 영유아 영상매체 시청 및 부모의 영유아 자녀 영상매체 시청 지도 행동 실태 조사. *유아교육연구*, 34(2), 303-323.
- 조안아, 고영자 (2013). 가정내 전자미디어 사용실태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24.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타당도 고도화 연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허계영, Squires, 이소영, 이준석 (2006). K-ASQ 사용 지침서. 서울: 서울장애인복지관.
- 현은자, 김태영, 조메리명희, 박은미 (2011). 가정에서의 디지털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 *신앙과 학문*, 16(4), 245-266.
- Anderson, D. R., Huston, A. C., Schmitt, K. L., Linebarger, D. L., & Wright, J. C. (2001). Early childhood television viewing and adolescent behavior: The recontact study. *Monograph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1), 264.
- Briggs-Gowen, M. J., & Carter, A. S. (2001). *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ITSEA) Manual version 1.1*. The Connecticut Early Development project, Yale University.
- Hozefa, A. Divan, Leeka Kheifets, Carsten Obel, & Jorn Olsen (2010). smart phone use and behavioral problem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pidemiol Community Health*, 64(6), 524-529.
- Mukaddes, N. M., Bilge, S., Alyanak, B., & Kora, M. E. (2000).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response in cases diagnosed as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30(4), 273-287.
- Nakken, C. (1996). *The Addictive Personality: Understanding the Addictive Process and Compulsive Behavior*. Hazelden.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Sarasota, L. Van de Creek M and X, Jackson(Eds.), Press, 17(19-31).
- Young K. S., & Rogers, R. C. (1998). The relationship and betwee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1), 25-48.

- Zimmerman, F. J., Christakis, D. A., & Meltzoff, A. N. (2007). Television and DVD/Video Viewing in Children Younger Than 2 Years. *Arch Pediatrics Adolescent Medicine, 161*, 473-379.
- 뉴스위크 한국판 (1999). 귀여운 우리 아기. 태어나서 3세까지 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중앙일보.
- SBS (2008. 7. 28).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30개월된 TV 중독된 어린이의 개선하는 방법은?
- 1차원고접수 : 2015.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3. 06.
최종게재결정 : 2015. 03. 07.

The Influence of Infants'(1-3 years) Visual Media Overindulgence on their General,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Kyung Sook Lee

Hanshin University

Suk Jin Jung

Sewon Infant
Child Development Center

Myung Shig Kim

Jeonju Univers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infants' (1-3 years) visual media overindulgence on their general,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n infants' visual media overindulgence scale was created, and its content and construct validity proved sound. Participants comprised 795 mothers with infants across 5 provinces. There were three key findings. First, infant visual media overindulg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hers' Internet addiction, not fathers' Internet addiction. Second, infant visual media overindulg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development problems indicated in the Korean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Third, visual media overindulgence negatively influenced personal-social, communication, and gross and fine motor skills in the Korean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and aggression/defiance, activity/impulsivity (externalizing problem), depression/withdrawal, and general anxiety (internalizing problem).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fant, Visual Media Overindulgence,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